

제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3 인문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 출제의도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합헌”이며, 이와 더불어 “병역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데도,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의 종류)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또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관련법을 만들어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2001년 오태양 씨가 첫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로 18년, 2011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을 합헌 결정한 지 7년 만에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양심과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한 결정이라는 입장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나 법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쟁은 오래되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범죄자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신과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드러나는 정치 갈등이 세대갈등과 가족구성원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식은 촛불집회에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데 부모는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진영논리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빨갱이발언”까지 등장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이러한 편가르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자신과 같은 생각에는 ‘좋아요’하고 공유하며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가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한다.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방식은 더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에서 무섭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애초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다른 생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치 않다.

그러나 다양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생물체들의 생존에 긍정적인 것처럼 사회 역시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과의 상생의 문제가 발생하며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는 ‘새 발의 피’일 뿐이다.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사유를 ‘단순한 생각함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 제시문 분석

(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질문거리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유전자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압도적이다.

(중략)

유전자 가설의 핵심은 인간 본성을 형성하는 형질들은 인간 종이 진화해 온 기간만큼 적응을 거쳐 왔고, 그 결과 유전자들은 그 형질들의 발달 성향을 지닌 운반체 집단을 통해 퍼진다는 명제이다. 적응이란 간단히 말해, 한 개체가 형질을 드러내지 않을 때보다 드러냈을 때 다음 세대에 그의 유전자를 발현시킬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본 개체들의 차등적 이점을 ‘유전자 적합성’ 이라고 한다. 유전자 적합성은 개체의 생존 능력 강화, 개체의 번식 능력 강화, 공통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 및 번식 능력 강화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만일 어떤 유전자를 소유한 개체에게 특정 형질이 발현된다고 예정되어 있다면, 즉 그 형질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반응을 낳고 다시 우월한 적합성을 수반한다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발현될 것이다. 자연선택이 무수한 세대 동안 계속된다면, 적합한 유전자는 집단 전체에 퍼질 것이고 그 형질은 종의 특징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회생물학자, 인류학자, 기타 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 본성이 자연선택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중략)

인간의 정신은 경험을 통해 선과 점으로 뒤엉킨 그림들이 그려지는 백지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 대안 중에 어떤 특정한 대안에 먼저 다가가서 본능적으로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고, 유아에서 어른으로 자동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정해진 신축적인 계획표에 따라 육체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는, 주변 환경을 빈틈없이 경계하는 탐색자, 즉 자치적 의사 결정 기구로 기술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오랫동안 해 온 선택의 축적, 그것들의 기억, 앞으로 해야 할 선택에 대한 심사숙고, 각인된 감정들의 재경험, 이 모든 것이 정신을 구성한다. 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그를 다른 인간과 구별해 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결정에 따라붙은 규칙들은 모든 개인이 내린 결정들을 폭넓게 중첩시키고, 그리하여 인간 본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에 충분하고 강력한 수렴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빈틈이 없다.

제시문 (가)는 에드워드 윌슨의 <인간 본성에 대하여>에서 발췌 편집하였다. 에드워드 윌슨은 개미 연구의 1인자이며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생태학자이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하여>란 책에서 종교와 윤리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사회 행동은 결국 생물학적 현상에 불과하며 진화학적 방법론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시문은 윌슨의 핵심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간본성이 자연선택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즉 생물학적 본성으로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적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정신활동도 생존과 번식을 위한 장치로 인간의 이성은 그러한 장치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것이다.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랑이나 윤리, 자기희생, 종교와 같은 것도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어왔기 때문에 자연선택 되어 온 진화의 산물일 뿐이다.

(나)

우리는 응당 최고선의 촉진을 추구해야 한다. (최고선은 그러므로 역시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또한 이 연관의 근거, 곧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를 함유할, 자연과는 구별되는 전체 자연의 원인의 현존이 요청된다. (...)

도덕적 마음씨에 적합한 인과성을 갖는, 자연의 최상원인이 전제되는 한에서만, 이 세계에서 최고선은 가능하다. 무릇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자는 예지자(이성적 존재자)요, 이 법칙 표상에 따르는 그런 존재자의 원인성은 그 존재자의 의지다. (...) 이렇게 해서 도덕법칙은 순수 실천이성의 객관이자 궁극 목적인 최고선의 개념을 통해 종교에, 다시 말해 모든 의무들을 신의 명령들로 인식하는 데에 이른다.

(도덕 법칙은 의무들을 곧) 남의 의지의 제재(制裁), 다시 말해 임의적인, 그 자신 우연적인 지령들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 자신의 본질적인 법칙들로 인식하는 데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법칙들은 최고존재자의 명령들로 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도덕적으로 완전한(성스럽고 선량한), 동시에 전능한 의지에 의해서만 최고선을 희망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의지에 합치함으로써 최고선에 이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에서 발췌하였다. 칸트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철학자이지만 그의 저서들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실천이성비판>은 그 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논술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시문인 만큼 최대한 읽어 내야 할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자율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최고선을 따르는 도덕법칙에 따르게 되면 각 개인의 행위 규범 사이에서 상충할 만한 것이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다시 말해 개인 윤리(최고선에 이르는)가 철저히 준수되면 완벽한 사회 윤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의 실천적 의지는 어떤 감성적 충동에도 영향 받지 않고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자연적 경향성도 배제하며 오로지 도덕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전능한 의지에 의해서만 최고선을 희망할 수 있고 그 의지에 합치함으로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 도덕적 행위는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으로부터 나온 자율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칸트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 즉 자유의 주체가 되는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은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율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물과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

로렌스 콜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어린아이들은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른들은 많은 행위들이 비록 그것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잘못이며, 또 많은 행위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콜버그는 **인간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연속적인 단계를 통하여 도덕적 추론을 발전시켜 간다**고 주장한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	단계	도덕판단의 특성
인습 이전	1단계 처벌과 복종	행동의 결과에 근거하여 행동 처벌을 회피하고자 권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2단계 개인주의, 상호작용	자신과 타인의 욕구 충족,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고하여 행동
인습 수준	3단계 대인관계 조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동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민감하게 반응
	4단계 사회질서 유지	사회 질서, 법, 사회적 의무를 중심으로 행동
인습 이후	5단계 사회 계약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및 가치 존중을 기준으로 사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중시하며 집단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6단계 보편적 윤리 원칙	모든 인간 및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지향,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나 양심에 따라 행동

☞ 제시문 (다)는 로렌스 콜버스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고등학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각 수준별 어떠한 도덕판단의 특성을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도덕 발달 단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내면화 정도’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발달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덕 판단의 기준이 외적 기준에서 내적 기준으로 변화한다. 이를 인습이전-인습수준-인습이후로 나누어 전체 6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습이전수준은 1, 2단계로 처벌과 복종, 개인주의와 상호작용단계로 외부보상이나 처벌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인습수준은 3,4단계로 사회나 타인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인습이후수준은 5,6단계로 도덕성이 내면화되어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도덕규칙에 의해 판단하는 가장 수준높은 도덕발달단계이다. 이 수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도덕기준을 가진 것을 이해하며 관점에 따라 자신과 다른 도덕 기준도 맞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라)

하인즈(Heinz)라는 사람은 특수한 종류의 암을 앓아 거의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사러 갔다. 그 부인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약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느 약사가 최근에 발명한 것이었다. 그 약의 원가는 200달러 정도인데, 2,000달러를 요구했다. 남편인 하인즈는 돈을 구하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 다녔으나 약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1,000 달러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하인즈는 그 약사에게 가서 자기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약을 1,000 달러를 받고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라도 주면 다음에 그 돈을 갚겠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약사는 하인즈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절망에 빠진 하인즈는 결국 그날 밤 약사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그 약을 훔쳤다.

☞ 제시문 (라)는 콜버그가 도덕성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한 유명한 ‘하인즈 딜레마’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할 때 자주 회자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수 중 그 어떤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한 한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인즈는 결국 약을 훔치는 선택을 하였는데 이러한 하인즈의 선택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도덕성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위한 연대의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중략)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거나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실제로 보여준다. 가령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연구하여 교육하여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확신하려 한 민족문화수호운동이나 일제의 강제합병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성원의 외교활동 역시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택시운전자였다. (중략) 대한민국이 어떤 구성원에게 국방의 의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그 구성원을 소외시키지 않고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가에 헌신할 최소한의 전제조건도 충족시키지 않고 헌신할 것만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고단8059 병역법위반 판결

☞ 제시문 (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017 인권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합헌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임을 파악하여야 한다. 판결의

근거로 국방의 의무 수행은 대한민국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헌신만을 강요하며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사회 질서, 법, 사회적 의무를 중심으로 행동을 판단하는 ‘4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결의 기본 원리가 자유와 평등, 인권을 우선시한 것에 있으므로 콜버그의 도덕성발달단계 이론에서 가장 수준높은 단계인 ‘인습이후수준의 6단계’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 문제 분석

<문제 1> ‘인간행동의 기원’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400-500자)

비교를 요구한 문제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잘 드러나도록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우선 공통점은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에 해당하므로 우선적으로 서술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서술하는 것인데, 제시문의 단순 요약 나열로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시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선명하게 서술하는 게 좋다. 독해가 정확했더라도 대상 제시문을 구별하는 내용을 서두에 밝히지 않는다면 평가자는 비교분석이 아닌 제시문의 단순 나열한 것으로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차원에서 제시문의 논지, 즉 차이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치하여 제시문 간 대비가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 자체만 보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두 제시문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기준을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시문 내용 그 자체가 차이점에 해당하므로 제시문의 핵심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으로도 비교문이 완성된다. 또한 문제에서 ‘인간행동의 기원’을 중심으로 비교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면서 비교기준을 찾는 과정을 생략시켜주었다는 점에서도 각 제시문의 핵심논지만 정확하게 읽어냈다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 2> (다)를 이용하여 (라)의 ‘하인츠’의 행동을 분석하시오. (500-600자)

제시문 (다)에 설명된 도덕성발달단계를 이용하여 (라)의 하인츠의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 답안작성의 포인트는 (다)에 나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있다. 연관된 제시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의미를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는 (라)의 하인츠가 약을 훔친 행위가 (다)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된다. 각 단계별로 ‘약을 훔친’ 혹은 ‘훔칠 수밖에 없었던’ 하인츠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각 평가의 근거역시 제시문 (다)의 ‘콜버그의 도덕성발달단계’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3> (마)의 판결문이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도덕성 발전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600-800자)

자료를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그것과 관련한 견해를 서술하라는 문제는 단순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을 강조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험에서는 단순하게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각각의 상황에는 어떤 대응방안이 효과적인지 생각해 낼 수 있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논리적 글에는 논증의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자기 견해를 서술할 때도 제시문의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제시문 (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시문들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하므로 (마)의 법원의 판결이 제시문 (다)의 도덕성발달단계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다음 한국사회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그대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판결이 의미하는 바와 한국사회 현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향하는 바와 현실의 모습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이다. 따라서 (마)의 판결이 지향하는 정신이 한국사회의 도덕성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여 견해를 서술하는 게 적절하다.

■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인간이 어떤 행동하는 이유를 제시문 (가)는 생물학적 본성으로 설명하지만 제시문 (나)는 이성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먼저 (가)는 인간 본성이 자연선택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행동은 생존과 번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정신은 그러한 행동을 위한 다양한 기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간 이성이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되는 특성이긴 하지만 이 역시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나)는 인간 이성은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의 실천적 의지는 어떤 감성적 충동에도 영향 받지 않고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자연적 경향성도 배제하며 오로지 도덕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도덕적 행위는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으로부터 나온 자율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479자)

<문제 2>

하인즈는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훔쳤다. 이를 인습 이전 수준의 1단계에서 약을 훔치는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2단계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데 하인즈의 경우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된다.

인습 수준에 해당하는 3단계에서는 하인즈가 약을 훔치는 것은 약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4단계에서도 하인즈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법과 질서가 도덕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성이 내면화되어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도덕규칙에 의해 판단하는 인습이후 수준 5단계에서

는 약을 훔친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므로 용서해야 하고 6단계에서는 생명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인즈의 행동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옳바르다. (465자)

<문제 3>

제시문 (마)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합헌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수행이 개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 헌신만을 강조하는 병역법이 자유와 평등,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 질서, 법, 사회적 의무를 중심으로 행동을 판단하는 ‘4단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 구성원들의 마땅한 의무이다. 그러나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은 실정법이지만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조하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마)의 판결을 내린 것을 통해 도덕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우선시 한 판결이므로 6단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는 좀 지나친 확대해석인 것 같다.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낱선 대립이 존재한다. 양심과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한 결정이라고 입장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법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마)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및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 이를 발전시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역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792자)

■ 관련읽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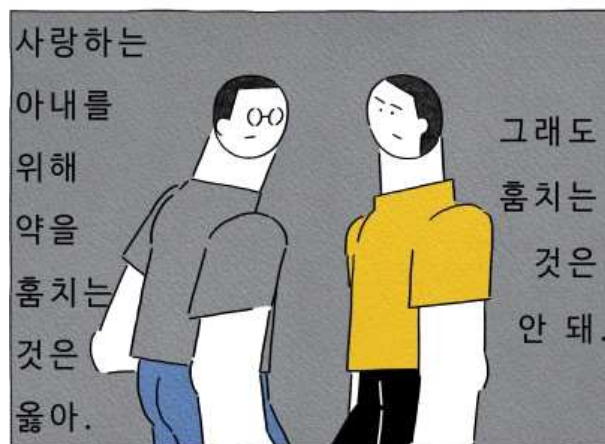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콜버그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따른 도덕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도덕적 딜레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는 하인츠(Heinz)의 예를 들어,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를 구할 돈이 없어 약을 훔치고야 마는 하인츠 딜레마(Heinz'sdilemma)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답을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도덕성은 질적으로 다른 세 가지의 발달 수준으로 나뉘며, 각 수준 당 두 가지 하위 단계가 존재한다고 제안하였다.

도덕 발달 수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전인습적 수준(preconventionallevel)은 아동에게 많이 관찰되지만, 성인에게도 관찰되는 수준으로 행동의 도덕 판단을 외부 보상이나 처벌에 근거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도덕 판단의 기준은 완전히 외부에 있다. 전인습적 수준은 행동의 결과에 따라 도덕 판단을 하는 타율적 도덕 단계와 내가 타인에게 친절할 만큼 타인도 나에게 친절할 것이라 가정하는 개인주의 단계로 나뉜다.

두 번째 수준인 인습적 수준(conventionallevel)에 속한 개인은 타인이나 사회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의해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인습적 수준은 도덕적 사고를 판단할 때 대인 관계 맥락에서 기대되는 행동인지 아닌지가 영향을 미치는 대인 간 기대(mutualinterpersonalexpectations) 단계와, 사회의 질서와 의무에 의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사회 시스템 도덕 단계로 나뉜다.

마지막 수준인 후인습적 수준(postconventionallevel)은 개인의 도덕성 수준이 완전히 성립되어 외부의 기준 및 규칙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을 칭한다. 이 수준은 타인의 다양한 의견과 권리, 가치와 자유를 인정하며 각각의 가치는 고유한 것으로 상호존중해야 한다고 믿는 개인의 권리 및 사회 계약 단계와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보편 윤리적 원칙 단계로 나뉜다. 콜버그는 이 단계를 충족시키는 개인은 드물다고 보았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하인츠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고안하였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 남편은 약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 약제사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약제사가 부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가?
- 만약 정당하다면 그리고 부인이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약제사를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한 다음 그 반응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도덕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도덕성 발달을 3수준 6단계로 제시하였다.

1) 제1수준: 전인습적 도덕기

1, 2단계가 속하는 이 시기는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단지 처벌과 복종에 의해 결정되며, 그 후 쾌락에 의해 결정된다.

(1) 1단계(복종과 처벌지향)

3세~7세에서 나타나는 이 단계는 벌과 순종을 향하여 있다. 따라서 하인즈가 약을 훔치는 것은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이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잘못된 친구를 고자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말할거야! 그렇지 않으면 혼날 테니까"라고 대답할 것이다.

(2) 2단계(상대적 쾌락주의)

8세~11세의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이 단계는 자신의 욕구충족이 도덕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약을 훔쳐서라도 하인즈는 자기 아내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시기이다.

2) 제2수준: 인습적 도덕기

전통적인 법과 질서에 동조하는 도덕성이 발달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며 사회질서에 동조하고자 하고 힘있는 사람과의 동일시를 하려 한다.

(3) 3단계 (착한 아이 지향)

12세~17세의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이 시기는 상호 인격적 일치기 나타난다. 따라서 하인즈가 약을 훔치는 것은 약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 시기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정의는 승리한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히는 시기이기도 하다.

(4) 4단계 (사회질서와 권위 지향)

18세~25세의 시기에 해당되는 단계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하인즈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법과 질서가 도덕기준을 판단하는 가장 큰 무기이다. 따라서 잘잘못을 가릴 때는 항상 법을 어겼는가 아닌가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아직 소수의 권리에 대한 예리한 감각은 없다.

3) 제3수준: 후인습적 도덕기

5, 6단계가 속하는 제 3수준은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원리원칙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별개임을 깨닫게 되면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행위를 하게 된다.

(5) 5단계 (민주적 법률)

25세 이상의 시기에 나타나는 단계로서 하인즈가 약국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은 잘못이나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므로 용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중시함으로 소수까지 포함된 모든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6) 6단계 (보편적 원리)

제 6단계는 극히 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이를 들 수가 없다. 이 시기는 법이나 관습 이전에 인간 생명이 관여된 문제로서 생명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편적 도덕원리를 지향하고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나 양심의 결단에 따른다.

(7) 7단계 : 우주적 영생을 지향하는 단계

콜버그는 말년에 7단계를 추가한다. 그것은 도덕 문제는 도덕이나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와의 통합이라고 보는 단계이다. 예수, 간디, 마틴 루터 킹, 공자, 소크라테스, 칸트, 테레사 등의 위대한 도덕가나 종교지도자, 철인들의 목표가 곧 우주적인 원리이다. 우주적인 원리가 속하는 것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율과 같은 곳에서 드러난다. 생명의 신성함, 최대다수를 위한 최선의 원리, 인간 성장을 조성하는 원리 등이 우주적인 원리에 속한다.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은 기본적으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한다. 여기서 콜버그는 피아제가 도덕성을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양분한 것은 도덕성 발달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피아제가 주로 어린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에서 성인까지 확대하여 도덕성 발달을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칸트의 윤리사상

[고등 교과서 '윤리와 사상']

칸트 윤리 사상의 특징

칸트는 독일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로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 도덕적 삶의 초석이 되는 궁극적인 도덕 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이란 행위의 결과나 보상과는 상관없이 단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로 행해져야 할 어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오로지 옳은 것만을 지향하는 선의지를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까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 또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점에서 좋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성품이라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조차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도덕 형이상학 기초”



▶ 칸트(1724~1804): 1724년 독일의 쿤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도시의 경계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채 80세까지 살았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어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쿤히스베르크 시민들은 그의 산책에 맞춰 시계를 맞추었다고 한다.

▶ 칸트는 행위의 결과는 우리 의지의 역량 바깥에 놓여 있어 너무나 많은 변수와 우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도덕성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도덕적 선·악 판단은 오직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 다시 말해서 행위자의 의지와 관련해서만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의지야말로 도덕적 선의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선의지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것이며, 선의 개념이 도덕 법칙에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이 선개념에 앞서 있다.

이처럼 행위의 결과나 행위 자체보다도 행위자의 의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기를 중시하는 칸트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의지란 무엇인가? 칸트 윤리에서 선의지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어떤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즉 도덕 법칙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도덕 법칙은 칸트가 옳음의 기준으로 제시한 규범으로서, 늘 자기중심적이 되기 쉬운 개인적 의지를 보편적 의지와 일치시키기 위한 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만일, 언제나 사심 없이 공명정대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 도덕 법칙은 자연법칙처럼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겠지만, 본능적 욕구에 이끌릴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 입장에 빠지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 준칙과 도덕 법칙: 칸트는 개인적 의지에 따른 행위 규칙을 준칙이라고 불렀다. 준칙이 그것을 채택한 개인의 의지에만 타당한 것이라면, 도덕 법칙은 모든 사람의 의지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칙을 가리킨다.

▶ 보편주의 이념은 결국 인간 존엄성의 이념과 통한다.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각자가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법칙은 명령 중에서도 무조건적인 명령, 즉 정언 명령의 형태로 제시된다. 어떤 조건이 붙은 명령, 예컨대, “네가 남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라.”와 같은 가언 명령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의 전제가 되는 어떤 상위의 목적이 있으면,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칸트가 도덕 법칙으로서 첫 번째로 제시한 정언 명령은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 할 때 항상 보편적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한다. 칸트는 모든 도덕 문제의 핵심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태도의 극복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적 원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 정언 명령: 이미 전제된 어떤 목적 없이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인 명령

◇ 가언 명령: 이미 전제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을 지시하는 명령

칸트의 이러한 보편주의의 밑바탕에는 인간은 존엄하다는 정신이 깔려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각 목적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은 모두의 입장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다른 사

람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리하여 칸트가 제시한 또 하나의 정언 명령은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 하라.”는 것이다.

▶ 인간 존엄이라 할 때 ‘존엄’이란 단지 교환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 쓰이는 용어이다. 따라서 존엄한 존재인 인간은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단지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칸트의 윤리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 되는 이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존엄한 존재임을 전제하는 사회인데, 칸트의 의무론은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 정신과, 모든 사람이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격주의 정신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 의무론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없지 않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우리의 실제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 규칙들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가, 행위의 결과와 행복을 도외시키고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엄격하여 현실적인 호소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 또 칸트 의무론은 법칙과 원리를 중시하는데,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 칸트의 사상은 실제 삶에 있어서 구체적 행위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허하고, 빈약하며, 단지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단지 형식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칸트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이론의 커다란 장점으로 여겼다. 도덕의 최고 원리, 다시 말해 어떤 준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스스로 검사해 보라는 것이다.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칸트 이론의 목적이었다.

■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

※ 이 글은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논술고사에서 400~500자로 요약하기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시험을 보지 않지만 요약능력은 모든 논술문제의 기본입니다. 독해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으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계몽이란 인간이 의타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의타적 상태에 처한 인간은 남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한 상태는 그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의타적 상태는 지성의 결핍이 아니라 남의 도움 없이 지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서 비롯한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가 바로 계몽의 구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토록 의타적인 상태에 머물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그러한 상태는 나태와 비겁에서 기인한다. 의타적 상태에 머무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 책이 내 대신 지적인 활동을 하고, 성직자가 내 양심을 지키고, 의사가 내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짜준다면, 나는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돈만 낼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번거로운 일들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다. 후견인들은 사람들이 성숙으로의 과정을 힘겨워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게 여기도록 하고서는 그들의 감독자역을 자청한다. 후견인들은 우선 피보호인을 입 다물게 한 후 잠자코 있는 그 피보호인에게 그가 보행기 없이는 한 걸음도 감히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지시킨다. 그리고 나서 후견인들은 피보호인이 혼자 걸으려고 시도할 때 당면하게 될 위험들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후견인들의 강조와 달리 그 위험은 실제로 크지 않다. 몇 번 넘어지고 나면 혼자 걷는 법을 끝내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실패의 사례들이 제시되면 피보호인은 겁을 먹어서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개인이 의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는 자신에게 거의 천성이 되어버린 의타적인 상태를 선호하게 되어 당장은 그의 지성을 정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 동안 아무도 그에게 지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령과 규칙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저 기계적 작용들은 의타적 상태를 영속화시키는 족쇄들이다. 누군가 그 족쇄들을 벗어던진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좁은 도랑을 겨우 건넌 데 불과하다. 그는 아직 그런 유의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다. 무능력에서 벗어나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자유 이외에 계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방에서 “따지지 말라” 는 소리가 들린다. 장교는 “따지지 말고 그저 훈련하라” 고, 세무원은 “따지지 말고 그저 세금을 내라” 고, 성직자는 “따지지 말고 그저 믿으라” 고 말한다. 도처에서 자유는 제한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한이 계몽을 방해하고 어떠한 제한이 계몽을 촉진하는가? 나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만이 인간들에게 계몽을 가져온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계몽의 진전이 방해되지 않고도,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가령 개인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서 대중에게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그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공 조직에서 수행되는 많은 일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메커니즘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정부는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망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만 복종이 있을 뿐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개인은 공적 조직의 구성원이면서 세계 시민사회와 전체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저술을 통해 독서 대중에게 진술하기도 한다. 그 경우 그는 공적 조직원으로서 그가 맡은 책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논의를 펼칠 수 있다. 장교가 근무 중에 상관의 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의 적합성이나 유용성 여부에 대해 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일 것이다. 그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학자로서 독서 대중에게 병역의 의무가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할당된 세금에 대해 염치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징벌의 수치를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학자로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서 대중에게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는 시민적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계몽 중인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이성을 확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현재로서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다는 명백한 조짐들을 우리는 본다. 계몽을 가로막고 의타적인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 이 시대는 계몽 중인 시대이다.